1930년3월21일4면4단

懷疑主義批判(五)

-思想과生活의方法論-

裵相河

이곳서 비로소 懷疑主義의 일흠은 나타난다. 길게 말하면 懷疑主義의 意義는 以上과 가트나마 이것을 簡單하게 定義해서 權威-不安-懷疑-破壞-建設이라 하고 십다. 그럼으로 懷疑는 破壞의 第一次的 基礎이며 建設의 第二次的 基礎이다. 녯날 權威가 새로운 建設로 새로운 權威로 化하려면은 懷疑는 權威와 權威의 媒介的 中間이다. 偉大한 思想이 偉大한 建設이 偉大한 建設에 胎生한다 할 것 가트면 徹底한 懷疑는 偉大한 建設의 『첫날밤』이다. 우리는 녯날 權威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케케묵은 녯날 組織을 쎄여허트리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속 썩히고 울고만 잇슴인가? 그러나 울고 속 썩힘만이 能이 아니어니 눈물을 가슴에 안고 마음을 아렛배에 싸두어 쓰거움게 불으지지기 前에 헷치고 쒸올르기 前에 冷靜히 긋세게 權威의 缺點을 洞察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病든 生物이 길이 살지 못하는 것처럼 無數한 致命的 缺陷을 正面으로 □□하고만 權威이면은 그냥 두어도 自滅하는 싸닭이다.

以上論陳을 더욱 具體的으로 細密히 論述키 위하야 何文館版□『哲學大□□』을 引用한다.

(인쇄상태불량으로 발췌문 생략)

....에 依할 것 가트면 懷疑論은 廣狹 兩義로 解釋할 수 잇다한다. 그러나마 本論에서 뜻하는 바 懷疑主義는 單純히 狹義만으로 解釋해서 哲學 上 認識의 可能을 拒絶하는 學說 쑨만을 가르침이 아니라 廣狹 兩義를 包括해서 理論(思想) 또는 實踐(生活) 上 或은 兩者에 關한 從來의 思想 時流 在來的 權威에 滿足치 안흘 쑨 아니라 이에 反對하는 모든 精神的 態度, 主義를 가르침이다. 換言하면 哲學 上 認識論에 잇서서 認識의 絶對性을 否認하는 不可知論 또는 表面的, 感覺的 現象만의 認識을 主張하는 感覺說 等의 根本基礎가 되어잇는 懷疑主義 쑨만이 안이라 더욱 널리 잡어 單純한 理論的 哲學의 限界를 超越하야 모든 思想과 生活에 잇서서 在來의 權威에게 反抗하자는 在來의 權威를 破滅하자는 在來의 權威에 對하야 새로운 革命을 일으키자는 偉大한 企圖의 基本的 根據를 이곳서 吾人은 懷疑主義라 定義하는 바이다.